

국힘 비윤계, ‘전당대회 당심 100% 룰’ 반발 심화

“尹 개입은 심각한 불법”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당대회를 룰 개정을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16일 비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전당대회 룰 관련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냐’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정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그 중 공권 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꼬아붙였다.

이어 공무원의 의무와 당내 경선 운동 금지를 정의한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57조8을 열거하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입’에 출연해 “9대, 10대0 이하기도 나오는데, 9대는 좀 쪼잔하고 구질구질하지 않냐. 화끈하게 10대0으로 하라”고

비꼬기도 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선 “이 문제 때문에 민심이 돌아서서 총선을 참패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이러바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언론을 통해 정해진 이후 기다렸다는 듯 너 무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윤

그러면서 “우리는 전 국민을 바라보고 전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명분을 저버린 정당이 감히 국민들의 지지를 바라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오만이자 중대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16일 페이스북

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전당대회 룰 개정을 공식화한 당 지도부를 겨냥해 “국민이 많은 그분들에게 틈을 드리자면, 고르다우스의 매듭을 풀 때는 단칼에 내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당원 투표를 확대하면 오히려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 가입 명단을 비공개고, 각 당이 명단을 따로 보유해 온라인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한 당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동네에서 장사나 단체활동하시는 분들의 명단이 통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경선 때마다 필적이 같은 입당서 수십장이 들어오는 것도 현실이다. 실제로 총선 때 각 당이 경선하면 양당 한 번씩 경선에서 찍는다”고 의심했다.

그는 “공무원과 군인의 정당 가입이 금지돼 실제 유권자 중 공무원 표심이 대변되지 않는데, 이들이 지역 여론을 주도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여론조사는 샘플링이라 여러 왜곡이 상쇄되지만, 당원 정보는 검증 불가능해 오히려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bias(편향)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뉴스

유승민 “박근혜도 공천 개입으로 징역형”

김용태 “오만이자 중대한 착각”

이준석 “당원 100%에 심기경호 가산

당원정보 검증 불가능… 왜곡 가능해”

핵심들의 ‘거수기 행보’를 지켜보는 게 안타깝고 경악스럽다”고 평가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절대 민주주의 정당에서 특정 인물 한 명이 무서워 상식도 절차적 명분도 짓밟아버린 채 안하무인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라던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에 “전당대회도 그냥 당원 100% 하고 심기경호 능력도 20% 정도 가산 점도 멘토단이 평가해서 부여하면 된다”라고 적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 전 대표는 “9대이나 10대0이니 해보아 눈총만 받는다”며 “원래 정치권에서는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싶을 때 가산점 제도도 활용한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환경미화 근로자 감사패 수여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전주12)은 지난 16일 의장실에서 올 연말 퇴직하는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국주 의장은 “이른 새벽부터 의회 청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덕분에 의원과 직원들이 하루 시작을 상쾌하게 할 수 있었다”며 “새로 시작하는 제2의 인생에 건강한 삶과 행복한 일상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도의회는 탐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미화근로자들은 “근무하는 동안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늘 도의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감사패 수여식 후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과 20여년 일하는 동안 추억 등을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이 지난 16일 의장실에서 올 연말 퇴직하는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 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뒤, 근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태창 도의원, 군산

소상공인협회 감사패 받아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이 지난 12월 군산시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한미당 축제에서 (사)군산시 소상공인협회(이사장 문모세)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협회 측은 “평소 강태창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노고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강태창 의원은 “소상공인 분들께 더 나은 삶의 현장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받으니 큰 감사함과 기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감사패 수여의 의미를 되뇌고, 더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주시의회, 내년 2조4458억 예산안 의결

예결특위, 201억 삭감 수정 가결... 올 한해 의정활동 마무리

전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일반회계 2조2,121억원, 특별회계 2,336억원을 포함한 2조4,45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397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주만)는 전날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201억7,400여만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한 바 있다. 예산안 삭감 내용에는 성평등 복합 문화공간 조성 시설비 14억1,000만원, 호남제일문 대표관광지 조성기본부상

용역비 2억5,000만원,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3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전주관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보전금(소각재반출수수료) 8,000만원은 추후 반영으로 전액 삭감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474억원)에서도 70억원 삭감했다.

시장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4억9,000만 원) 9,000만원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 제작·운영비와 전주오픈 국제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비도 각각 1억8,000만원을 줄였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11차례 회의를 통해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 모두 2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장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15건의 시장질문과 68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도 제시했다.

이기동 의장은 “제12대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의 실천을 위해 노력했다. 2023년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산안은 총 예산액 4,621억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79억원이 증가된 5,239억원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장수군의회는 이번 정례회기 중 운영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섭)에서는 지난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총 10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 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장수=교광호 기자

“최소한의 양심 있어야지”

김진표 국회의장, “19일에 예산안 통과시켜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마저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오늘 중에는 큰

들의 합의안을 발표해주시고 세부사항을 논의해서 19일에는 꼭 예산안을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결단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가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고 오늘 중에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만들어올 줄 알았다”며 “오늘도 일괄타결이 안 돼 참 걱정이고 서운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소비자 줄고 수출이 줄고 투자가 줄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한미타결로 북방경제위기상황인데 유일하게 정부와 선수들이 가진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수단이 재정”이라며 “지난 2일까지 합의해야 할 것을 시간을 질질

끌어 오늘이 벌써 16일인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면 집행이 언제 되겠냐”고 물었다.

이어 “이럴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은 취약계층 아니냐. 취약계층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은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없고 전부 지방정부 예산과 매칭돼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자치정상광역단체는 오늘까지 예산 심의를 끝내고 기초단체는 21일까지 끝내게 돼 있다. 그렇게 해야 겨우 구정 전까지 복지 예산이 지출돼 세 모너 사건 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내가 내놓은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도 합의를 안 하니 내용은 제인에 불과하고 합의를 해달라”며 “쟁점을 받아서 검토해보니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이라도 두 분이 정부와 합의해 합의안을 발표해주시고 주말에 모든 일들을 거쳐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에는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미 지방정부, 광역·기초 정부는 우리 때문에 법정 시한을 못 지키고 있다. 그러면 피해보는 건 국민이고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

남원시의회, 예산안 1조263억 확정

정례회 일정 마무리...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지난 16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32일간 진행된 제266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 △일반회계 예산안 등이 이루어졌다.

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회계 4건과 기금 운용계획안 11건을 심사했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의·의결

2023년도 본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149억을 삭감하였으며 1조263억원으로 확정됐다. 전평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먼저 2023년 본예산안은 세입 일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예산서가 다시 제출되는 등 예산서 작성에 있어 신중하

지 못하고 부실한 면이 발견되었음을 언급했다.

또한 사업조서 작성 부실, 사전절차 미이행, 근거 조례 없는 사업예산 편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향후에는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편성 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는 시민·집행부 부서·의회와의 소통 부족,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업무 효율성 하락 등을 전한 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 끝에 부결(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을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시민과 공직자를 불모로 잡는 소모적인 경쟁이라는 표현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 처음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는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등이 있을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의의회, 내년 예산 5353억5008여만원 의결

무주군의의회(의장 이해양)가 12월 15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무주군의의회 올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간 열렸다.

이번 정례회 기간 군의회는 무주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와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는 시정요구 44건, 처리요구 58건, 건의 91건으로 모두 183건의 사항이 지적됐으며, 이날 13일에는 무주군

의회 황인동 의원과 문은영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5일 제7차 본회의에서 오광석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 정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2023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은영)의 심사결과에 당초 요구액(5,354억6,308만7,000원) 대비 0.021%(1억1,300만원) 삭감된 5,353억5,008만7,00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군의의회, 내년 예산 7672억 확정

정례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조례안 등 의결

고창군의의회(의장 임정호)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달 16일부터 이날 16일까지 31일간 운영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시책보고, 군정질문과 답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고, 16일 본회의에서 상임·특별위원회회를 통한 ‘고창군의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4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치면서 내년도 최종 예산안 규모는 7,672억원으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고창=김영식기자